

# 여야,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합의

### 교섭단체 대표연설·대정부질문도 원 구성 협상 21일까지 마무리 입법 공백 장기화에 서로 부담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경제 제안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하반기 원구성에 한 발 다가섰다. 국민의힘 권성동·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 원 구성 협상이 '다데이'였던 전남 제헌절까지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을 둘러싼 이견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표류하자, 일단 이견이 없는 일정부부터 진행하기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입법부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여론의 부담을 피하기 위해 일단 '개문발차'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이 장기화할 경우 시급한 민생 입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민생특위 및 인사청문 특위부터 구성할 것을 요구해 왔다. 권 원내대표는 전남 제헌절 경축식에 앞선 환담에서 '선(先) 대정부질문, 후(後) 상임위 선출 협의' 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안 등은 원 구성 협상과 '일괄 타결'해야 하는 만큼 이날 합의에서는 제외됐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민생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3명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맡기로 했다. 활동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고,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특위에서는 유류세 인하폭 추가 확대, 납품

단가 연동제,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 직장인 식대 비과세 축소, 안전운임제, 대중교통비 환급 등 경제 현안을 다룬다. 아울러 여야는 20일 민주당, 21일 국민의힘 순으로 이틀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기로 합의했다. 25~27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25일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26일에는 경제 분야, 27일에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다. 여야 원내대표는 아직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한 원 구성 협상을 오는 21일까지 마무리하도록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상임위 배분이 합의가 안 됐으니 일단 출발을 시키는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배분도) 잘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성일종 의원, 전남대병원 새병원 건립 협조

### 안영근 병원장·윤경철 기획실장 국회서 만나 협력 논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이 전남대학교병원의 새병원 건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과 윤경철 기획조정실장은 최근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성일종 정책위원회 의장을 만나 새병원 건립을 논의했다. 안영근 병원장은 "급변하는 미래 선진의료에 대비하고, 나아가 선도할 수 있는 최첨단 의료인프라 구축을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 신축 사업'은

광주·전남 시도민의 숙원사업"이라며 "40년 이상의 노후된 병원 공간을 재조성하고 호남권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및 최상위 전문집합 집중의료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성일종 정책위원장은 "지방과 수도권과 격차를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전남대병원의 새병원 건립이 진행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며 "또 강기정 광주시장을 만나 전남대병원의 뉴 스마트병원 신축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채희중 기자 cae@kwangju.co.kr

## 박지현, 민주 당대표 출마 신청 실패

### 접수처서 서류 제출 거부 당해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당 대표 예비경선 후보 등록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박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께 국회 의원회관 348호를 찾아 민주당 전당대회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을 하려 했으나, 피선거권 자격 미비를 이유로 접수처에서 서류 제출이 거부당했다. 접수처 관계자는 박 전 위원장이 신청서가 담긴 서류 봉투를 건네자 "당직 선출 규정에 따라 피선거권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서류 접수 자체를 진행할 수 없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전 위원장은 "(자격 요건은) 서류를 받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지만, 관계자는 "당직 선출 규정에 따른 자격 미비인 부

분은 저희가 다 알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위원장의 측근은 "위원장님의 입당 날짜가 언제인지는 아닙니다. 서류를 접수하고 검토해야 미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지, 거부부터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박 전 위원장은 "받아보고서 당이 알아서 해달라. 파쇄하든지 접수하든지 그건 당에서 처리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서류 봉투를 두고 접수처를 빠져나왔다. 박 전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접수조차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전달받은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만약 후보 등록이 된다고 해도, 내부 의사 과정에서 의결이 안 된다면 수용할 것인 거"라는 질문엔 "그 결정에는 따를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당 대표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18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노천극장 창고에서 열린 연세대 청소년동자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 DJ 묘역 참배 이재명 "DJ 리더십 닳고 싶다" 당권행 첫발

### "계파 공천·공천학살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고문은 18일 서울 국립현충원에 있는故 김대중 전 대통령(DJ) 묘역을 찾는 것으로 당권행 첫발을 내디뎠다. 이 고문은 참배객 서명대에 DJ의 유명 어록을 인용, "상인적 현실감과 서생적 문제의식으로 강하고 유능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 고문 측 관계자는 "첫 일정을 DJ 묘역으로 잡은 것은 민주당을 실용·민생정당으로 변화시킬 리더십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며 "1998년 IMF 사태를 극복한 'DJ 리더십'으로 지금의 민생 위기에 대처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DJ 묘역 참배는 그간 당내 비주류로서 체감했던 적통성 한계를 보완하는 한편 당내 통합 메시지도 담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전날 8·28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면서 2024년 총선 공천 시 '계파 공천'이나 '공천 학살'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이 고문은 참배를 마치고 연세대학교로 이동, 노천극장 창고에 마련된 노조 사무실에서 학교 청소년 노동자들과 만났다. 그는 현장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그것만 주란 게 아니고 반드시 그 이상 주란 최저선인데 (사용자는)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을 혼동하는 것 같다", "쾌적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인데 화장실 앞 창고를 (노조) 사무실로 쓰고 있다.

참 안타깝다"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반면 비이재명계는 이 고문의 등판이 현실화하자 기다렸다는 듯 대대적 공세를 가하며 '이재명 당 대표' 결사저지 태세를 보였다. 비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분열이 심화할 것인데 총선을 어떻게 치르겠느냐. 총선에 실패하게 되면 대통령 선거도 실패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설 의원은 전날 이 고문의 출마 기자회견 1시간 후에 자신 역시 당 대표 출마 선언 회견을 진행하며 "맞불"을 냈다. 출마 선언문에서는 이 고문을 '폭주기관차'에 빗대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전남도의회, 예산안 심사 등 본격 의정활동

### 19일부터 임시회

민선 8기 전남도의회가 19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지역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방의회가 같은 당 소속 단체장의 정책에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거수기'로 전락하지 않기 위한 견제·감시 시스템을 강화해줄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전남도의회는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11일 일정으로 제 364회 임시회를 연다. 원 구성 이후 열리는 첫 임시회로, 전남도와 전남교육청에 대한 주요 현안 보고 및 '2022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20일부터 28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한편,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뒤 26~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9일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할 계획이

다. 전남도는 애초 예산보다 8919억원이 증액된 10조 938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다. 도 교육청은 1조 2382억원이 증액된 5조 5712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전남도는 경기 침체로 인한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고 미래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춰 전남도교육청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시대 교육 안전망 구축 등을 강조한 예산안을 제출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임시회를 통해 민선 8기 도정과 교육행정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이날 도의회 대변인으로 최정훈 의원(민주·목포 4)을 선임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투자자 모심

1. 자금 - 5억원 이상
2. 기간 - 2년~3년 정도
3. 물건 - NPL, 금매물, 경매특수물건
4. 수익 - 연 20% 이상 법적 보장
5. 보장 - 근저당 또는 소유권 이전
6. 지역 - 경기, 수도권, 전남/광주
7. 방식 - 단독 또는 공동투자

주식회사 오 천  
부동산 투자 전문회사  
H. 010-3605-5000